

내가 만든 앱으로 세상과 소통하다

App개발 특성화 교육

융합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방학 기간이지만 App개발 특성화 센터는 3기 교육생들의 열기로 뜨겁다. 전공과 상관없이 App개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수업 내용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난다.

중앙대학교 App개발 특성화 센터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 특성화 사업(CK-II)을 위해 2016학년도 겨울방학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Apple iMAC과 Mac mini server, Apple TV를 기반으로 한 유무선 네트워크 음향, 영상 시스템 등 최적의 App개발 환경을 갖추었다. 2016년 겨울방학부터 Apple의 공식 iOS App Prototype Curriculum을 기반으로 한 'CAU App개발 특성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App개발 특성화 교육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협업을 통해 융합능력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스마트 시대.
이런 시대에 많은 이의 관심사는 바로 스마트폰 앱 개발이다.
특히 1인 혹은 소수 개발자들의 성과가 눈부시다.
이런 열기에 맞추어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CAU App개발 특성화 센터에서 개발자의 꿈을 위해 도전하고 있다.

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취·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Apple Korea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 2017학년도 겨울방학 3기 App개발 특성화 교육이 진행 중이다. 방학기간 7주를 활용하여 총 13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은 알고리즘, Git 교육으로 구성된 기초교육 과정, 앱 기획과 디자인을 익히고 애플리케이션 실물모형을 제작하는 앱 프로토타이핑 과정, 그리고 코딩의 원리와 기법, Swift 언어의 특징을 배워 실제 기기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게 되는 앱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세분되어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전공 분야를 망라한 지식의 습득,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경험을 하면서 융합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필요한 앱은 직접 만든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CAU App개발 동아리' 활동 자격이 주어진다. 'CAU App개발 동아리'는 지난 2017년 5월 12일 출범식을 가졌으며, 2017학년도 겨울방학 특강 후 3기째 운영하고 있다. CAU App개발 특성화 교육을 수료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학생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또 월간 세미나, 학기 결산 워크숍을 통한 전문가의 피드백과 멘토링이 제공되고, 2018학년도부터 CAU App개발 동아리 주최의 iOS App개발 공모전을 시행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겨울방학 특강을 통해 총 7개의 프로토타입 앱이 발표되었고, 그중 '영어 라디오 PRO-News&Talk', '독서노트' 애플리케

※ WWDC(Apple 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는 매년 미국에서 애플이 개최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로 애플의 연례행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린다. 애플은 매년 WWDC를 통해 맥 제품군과 아이폰 등에 쓰이는 운영체제의 새로운 버전과 새 제품을 발표한다.

이션은 실제로 앱스토어에 출시되었다. 아울러 수료생 1명은 Apple이 미국에서 개최하는 개발자 행사인 WWDC에 본인의 성과물을 출품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학생들의 App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Apple Korea가 체계적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어 산학협력 융·복합 인재양성의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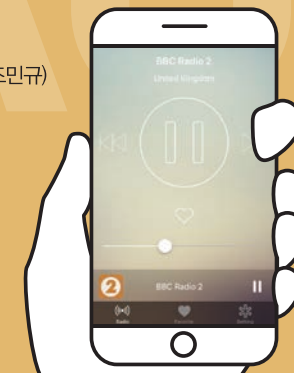
2017학년도 겨울방학 특강부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간에 App개발 경진대회를 시행하여 우수 App개발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수강생이 만든 앱

영어 라디오 PRO-News&Talk

제작 랜덤 디제이 팀(권병수, 심지선, 조만규)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토크, 뉴스 위주의 라디오 채널을 모아놓은 간편한 라디오 앱. 심플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에 이용하기 편리하다. 듣고 싶은 국가의 라디오 채널을 선택해 듣고 즐겨찾기에 저장해 놓으면 언제든지 쉽게 들을 수 있다.



독서노트

제작 신길용

체계적인 독서를 도와줄 수 있는 앱이다. 자신이 읽은 책을 검색하거나 촬영한 표지 사진을 가져올 수 있고 책을 읽은 후 생각과 책 속 한 문장을 정리해 기록할 수 있다. 자신이 읽은 책 정리는 물론, 다른 사람의 독서노트를 참고할 수도 있다. 깔끔한 디자인과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법이 매력적이다.

